

현장시선



부 동 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제주 관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위축됐던 관광시장을 내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면서 역대 가장 많은 내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 관광을 이끌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관광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입은 관광사업체 경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광국과 함께 힘겹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이나 경영 유지에 필요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경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 경영 재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취업유지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업계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라동에 제2사무실을 설치해 업계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매주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 관광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문체부가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계획에서 제주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은 더욱 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시장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경쟁과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을 제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관광객 유치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홍보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해외시장을 어떻게 조기에 회복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해

외 비즈니스 마케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도 12개국 40개 단체 우호 협력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시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 등 다른 지자체들의 특별자치제 준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정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 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어 관광 1번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계묘년 새해에는 영특함과 지혜의 상징인 토끼가 도약하듯이 제주 관광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

원 장관이 '제2공항 정보' 속시원히 밝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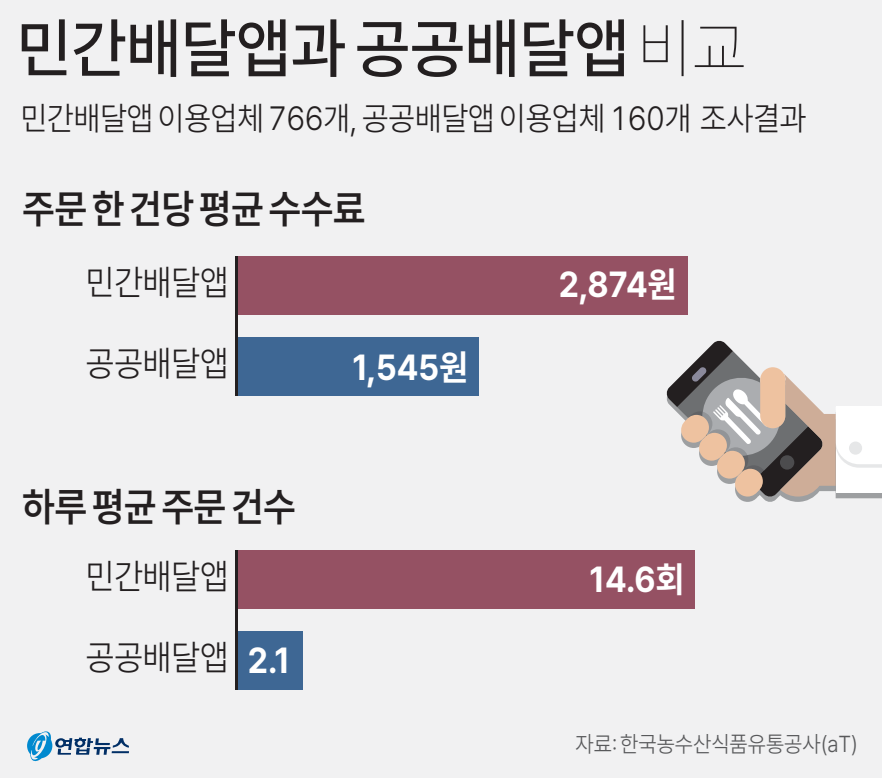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를 왜 꺼리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다. 지난 10월말 용역이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엇그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제2공항 건설시 군사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시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은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원희룡 장관은 아예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2

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부는 추진 과정을 감추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는 비공개 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투명한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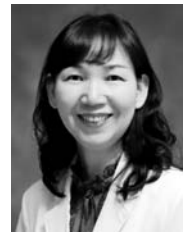
국토부의 쉬쉬하는 일련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 제2공항 검토 용역이 끝난지 두달이 넘도록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 지사의 입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 복사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원 장관은 도지사 재임 당시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감출게 뭐가 있는가. 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제2공항을 둘러싼 모든 내용을 속시원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코로나 시대 금연의 중요성



김 현 주
제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흡연은 암, 심혈관 및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주요 사망률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인자로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흡연이 병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 시대 금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한 사망률이 45%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자담배 이용자와 일반 담배 이용자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합병증을 증가시켜 전자담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흡연이 호흡기관 장막을 훼손해 병원균 침투의 위험을 높이고, 중요한 방어기전인 점액섬모 청소 작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담배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과 일산화탄소가 조직 손상 및 염증을 일으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새해를 맞이해 세우는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금연이지만 가장 빨리 포기하게 된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해진 담배와의 거리 두기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 시작을 추천한다.

뱃길 여객 급증... 2관문 역할 제고 총력을

제주 뱃길로 찾는 이용객이 급증, 2관문 제주항 역할 증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관문인 공항이 날로 번잡해 신규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뱃길 여객 증대는 공·항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뱃길 이용객 증가가 제주항의 2관문 역할 제고로 이어지도록 2단계 외항 개발사업 등에 속도를 내야 할 당위성이 커졌다.

기 해제로 인한 제주여행 수요 증가, 항공·렌터카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객선·자차 이용 선호 등이 복합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한시적이기보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 뱃길 이용객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집계 결과 올 1~11월 동안 부산 인천 목포 완도 진도 등 9개 항로 12척 연안 여객선을 통해 189만3074명에 이르렀다. 작년 같은기간 114만2600여명보다 무려 66%나 늘어난 것이다. 2년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뱃길 인기 연안 여객선 현대화와 서비스 제고, 항로 확대에다 거리두

기 해제로 인한 제주여행 수요 증가, 항공·렌터카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객선·자차 이용 선호 등이 복합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한시적이기보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항이 이용객 급증에 맞춰 선석난 해소,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선석난은 여객선 출·입항 지연과 신규 취항 불가 등으로 이어져 최우선 해결 과제다. 오 도정이 내년 1월말 부산 인천 목포 완도 진도 등 9개 항로 12척 연안 여객선을 통해 189만3074명에 이르렀다. 작년 같은기간 114만2600여명보다 무려 66%나 늘어난 것이다. 2년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뱃길 인기 연안 여객선 현대화와 서비스 제고, 항로 확대에다 거리두

한라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사쿠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부 고
김성미 (제주특별자치도청) 아버지 김해김공 영보(前 정무부지사·향년 82세)께서 서거 2022년 12월 28일 11시 3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부인 양정윤
딸 김성미
수미 사 위 현승학
현숙 안경훈
조카 김동현 외 손 현민범
정철 민준
친족대표 김태규 안성제
태보
※ 연락처 : 김성미 010-2696-2419
김수미 010-3333-4843
현승학 010-9186-2031
김태규 010-3697-417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밀양박공 영증(前 초등교장·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인 김창렬
아들 박태범
태경 며느리 김명선
딸 박경희 사 위 조성신
경자 강경중
경옥 고형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영기(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인 김석희
아들 김철희 며느리 문정심
딸 김미영
진영 사 위 금성옥
선영 김수철
선옥 부용규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